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추석 맞이 명절 음식 나눔 행사

✎ 석경혜 기자 | Ⓜ 승인 2024.09.11 21:44

성주지사와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성주 관내 유관기관들 함께 참여

[국제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9월 11일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에 온누리 상품권을 기부하고 정서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 음식을 전달했다.



▲ 명절 음식 나눔 ©국제저널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성주지사와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성주 관내 유관기관들이 합심하여 마련한 행사이다.

성주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총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복지관에 기부했다. 또한, 지사 직원들은 사회복지관에서 마련한 명절 음식을 소외계층 및 정서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명절을 맞아 정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정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 활동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매년 잊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달받은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석경혜 기자 ijj@ijj.co.kr